제 20 기 <u>결 산 공 고</u> 재무상태표

(2016년 12월 31일 현재)

(단위 : 원)

계 정 과 목	금 액	계 정 과 목	금 액
자 산		부 채	
l.비 유 동 자 산	93,079,318,755	Ⅰ.비 유 동 부 채	3,509,419,963
종 속 기 업 투 자	9,610,814,194	장 기 차 입 금	3,000,000,000
매 도 가 능 금 융 자 산	854, 134, 600	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	509,419,963
유 형 자 산	78,048,405,247	Ⅱ.유 동 부 채	19,384,008,214
무 형 자 산	2,893,009,320	단 기 차 입 금	6,000,000,000
기 타 금 융 자 산 (비 유 동)	532,900,897	선 수 금	912, 164, 866
이 연 법 인 세 자 산	1,140,054,497	매 입 채 무 및 기 타 채 무	10,019,015,745
Ⅱ.유 동 자 산	53,729,386,676	당 기 법 인 세 부 채	2,452,827,603
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	18,754,331,060	부 채 총 계	22,893,428,177
기 타 금 융 자 산 (유 동)	1,103,176,487	자 본	
매 출 채 권	22,504,919,470	┃ Ⅰ.자 본 금 ┃	4,699,453,000
재 고 자 산	10,040,739,752	┃ Ⅱ.자 본 잉 여 금 ┃	10,289,797,650
선 급 금	456,814,757	║.자 기 주 식	(2,297,239,305)
선 급 비 용	137,265,613	Ⅳ.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	(121,572,109)
기 타 채 권	732, 139, 537	V.이 익 잉 여 금	111,344,838,018
		자 본 총 계	123,915,277,254
자 산 총 계	146,808,705,431	부 채 와 자 본 총 계	146,808,705,431

연 결 재 무 상 태 표

(2016년 12월 31일 현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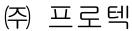
(단위 : 원)

계정과목	금 액	계 정 과 목	급 액
자 산		부 채	
1.비 유 동 자 산	87,125,659,654	l.비 유 동 부 채	3,475,340,213
매 도 가 능 금 융 자 산	854, 134, 600	장 기 차 입 금	3,025,920,250
유 형 자 산	81,137,982,334	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	449,419,963
무 형 자 산	3,835,901,653	Ⅱ.유 동 부 채	24,338,620,765
기 타 금 융 자 산 (비 유 동)	703,007,760	단 기 차 입 금	9,610,430,000
이 연 법 인 세 자 산	594,633,307	선 수 금	919,092,161
Ⅱ.유 동 자 산	61,975,583,376	매 입 채 무 및 기 타 채 무	11,025,028,957
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	19,939,986,627	유 동 성 장 기 부 채	311,043,000
기 타 금 융 자 산 (유 동)	3,765,021,262	당 기 법 인 세 부 채	2,473,026,647
매 출 채 권	23,692,270,166	부 채 총 계	27,813,960,978
재 고 자 산	13, 104, 413, 091	자 본	
선 급 금	406,030,983	지 배 기 업 소 유 주 지 분	120,436,090,279
선 급 비 용	171,254,852	┃ Ⅰ.자 본 금	4,699,453,000
기 타 채 권	896,606,395	Ⅱ.자 본 잉 여 금	10,289,797,650
		│ Ⅲ.자 기 주 식	(2,297,239,305)
		Ⅳ.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	(1,937,243,843)
		V.이 익 잉 여 금	109,681,322,777
		비 지 배 지 분	851,191,773
		자 본 총 계	121,287,282,052
자 산 총 계	149,101,243,030	부 채 와 자 본 총 계	149,101,243,030

상기와 같이 공고함.

2017년 03월 24일





대표이사 최 승 환

감사의견 :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20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 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지암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성 년